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2월 16일(금)
... (음력 1월 1일) ...

Пятница
16 февраля 2018г.
№ 6(11677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참모부 훈련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이들간의 합동 참모부 훈련이 잘 마무리되었다. 훈련시 사할린주 국가집행관과 법무기관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테러 행위 방지, 실습훈련을 했다고 사할린주 보안국은 알렸다. 참모부는 모든 기관들의 특히 상호 협력과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블라지미르 그린 작가와의 만남 개최

2월 21일(수) 17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 도서관에서 블라지미르 그린 작가를 소개한다. 블라지미르 그린은 러시아 보안청 출신이다. 러시아작가동맹 회원인 그는 7권의 소설을 펴냈다. 첫 단편은 2002년에 출판되었는데 사할린 동포들 속에서는 블라지미르 그린의 쓴 <오늘도 아물지 않는 쓰라린 상처>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카미시카 한인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한국어 번역에는 고 배영숙 전 새고려신문 상급기자가 담당했었다. 그린 작가와 만남에서는 작가와 작품 소개를 하고 작가와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어린 미술가들의 경시대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깨끗한 장에서> 주청소년 미술경시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회에는 주내 구역 14곳에 소재하는 18개 교육기관의 학생 105명이 참가한다. 10세부터 21세까지의 이들은 연령별로 4부분에서 경쟁했다. 첫 단계에서는 85명이 통과했다. 청소년미술경시대회는 이미 13년째 이뤄지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자 시상식은 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러시아 참전전사자 기념 스키경기

2월 18일 10시 40분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파르타크>경기장 스키장에서 크로스 컨트리 스키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기는 군복무 중 외국에서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을 추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18세 미만 선수들이 1킬로미터 부터 10킬로미터 까지 달리게 된다. 경기는 주 스포츠부, 동계종목스포츠학교와 아프가니스탄 및 타지역 전투의 참전군인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연초부터 사할린에서 50명 독감에 걸려

지난 13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소비감시청(로스포트렙나드소르) 사할린관리국에서 지역 역학 상황으로 브리핑을 가졌다. 1월 초부터 전문가 정보 따르면 사할린에서 50명이 인플루엔자(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는 역학 상황이 정상범위 있지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아동 3세-6세 중 정상을 넘어 17%에 달했다.

현재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인플루엔자로 인해 주내 (포토나이스크와 오하) 학교 4개에서 16개 반이 수업을 중단하였다고 전해졌다.

소비감시관리국 역학부 갈리나 콤포투크 부장에 따르면 환자는 주로 어린(4000여명, 84%)이다. 50명의 인플루엔자 환자 중 40명이 독감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사할린에서 음력 설맞이

올해 음력설은 2월 16일이다. 황금개띠 무술년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에서 음력설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사할린 동포들은 최근에 이 명절을 기념하기로 했다. 올해 역시 한인단체들이 즐거운 설맞이를 준비했다. 2월 16일 16시 사할린주한인회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음력설 기념행사를 한인문화센터에서 가지게 되며 같은 날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코르사코브, 아니와, 흠스크, 돌린스크, 사흐초르스크, 크라스노고로스크, 마카로브 등 다수 지방 한인회에서는 2월 17일에 음력설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음력설을 앞두고 일부 지방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세트도 전달했다.

해마다 음력설 공연에는 <에트노스>예술학교 한인족과 학생들이 단독으로 준비해왔는데 올해는 행사 형태를 바꾸고 <에트노스>학교가 <전통으로부터 현대까지> 행사를 2월 18일(일) 오후 4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펼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박람회, 놀이, 플래시몹과 <별의 시간>장기자랑이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전 제9동양어문학교)에서는 최근에 들어 음력 설맞이행사로 동양언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축제는 2월 16일 11시에 시작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경시대회도 포함돼 있다. 축제에는 동양김나지아 학생만 아니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 학교 학생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주정부, 극동토지 인프라 구축에 약 10억 루블리 지출

사할린주 정부는 인구가 집중해 <극동핵타르>프로그램으로 배분받은 토지의 제반시설구축에 9억 루블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재산토지부는 전했다. 2018-2020년 사할린주 예산에는 집중정착 토지에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이 포함돼 있다. 각 제반시설 건설에는 교통 분야에 2억7320만 루블리, 에너지 분야에 6억2330만 루블리를 지출 할 예정이다.

주 재산토지부 정보에 따르면 사할린에는 <극동 핵타르>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와 아니와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체들은 예산 대출 자금(1억800만 루블리)으로 건설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극동 핵타르>법을 실시 후 사할린주에 신청서는 1만684건이 들어왔는데 그중 단체 신청은 1000여 건이다. 가장 많은 신청은 사할린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다. 현재 6249 토지구역(총 면적 4182 헥타르)이 배분되었다.

사할린주민, 올림픽선수와 작별인사

지난 15일(목) 사할린주민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사할린에서 훈련을 하고 서울로 향하는 스키 크로스(프리스타일)팀을 배웅했다.

선수 6명은 2월 초부터 사할린에서 많은 훈련을 해왔고 <고르니 위스두흐>스키장 시설에 대해 만족해 했다.

세몬 젤시코브 스키 크로스 선수는 평창올림픽으로 떠나기 전날 사할린으로 날아온 스킨레이터 선수 올가 뽀피리즈나와 갑작스럽게 공식 결혼식을 가졌다. 신혼부부는 사할린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좋다고 했다.

동계올림픽에서 남자선수들은 21일 경기를 치르고 스키 크로스 여자선수들은 23일에 승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올해도 한국어 교육·한민족 문화 계승, 연수 프로그램, 한·러우호 축제 등 실시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님과의 인터뷰

사할린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사할린한국교육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과 만나 올해 계획들을 알아보았다.

- 원장님이 사할린에 오신 지 곧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적응이 되셨는지요? 사할린이 생각하신 것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셨습니까?

- 한국을 떠나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곳에 가면 몹시 춥고 생활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신 분들도 사할린을 와보시지 않았고 저도 사실은 사할린을 방문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걱정하고 사할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기 온 지 1년이 됩니다. 제가 작년 2월 25일날 첫 발을 내딛었는데 사할린의 1년 동안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 '좋다'입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물론 문화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도리어 복잡한 문화생활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 보고, 눈이 많이 오긴 하지만 자연 환경은 참 좋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우리 같은 러시아,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동안에 햇빛을 보는 시간이 6시간이었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할린은 늘 따뜻하고 맑은 햇빛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사할린을 한마디로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 2017-2018 학년도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원장님께서 소개하시다면요?

- 저희 교육원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 -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하고 한국어 회화도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부를 위한 반도 있고 노래

교실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과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통요리 교실이고 우리가 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절반이나 종이접기, 카드 만들기반 등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전통예절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원이 직접 교육과 전통문화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교육원의 임무이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 강사는 11분이고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신 분은 216명입니다. 수강생들은 동포와 현지 러시아인 등인데 비율을 말하자면 동포는 60%, 러시아인 등은 40%입니다.

- 원장님께서 직접 한자반을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 한자반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함께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업을 젊은 학생들보다는 연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반에서는 한자 그 자체를 아는 것 보다는 우리 한글이 바로 순수한 한글도 있지만 한자어에서 어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잘 이해하려면 한자도 잘 이해해야 본래 한국어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끔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이다 보니까 일단 젊은 학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은 한자반입니다.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 그런 한자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자와 우리 한국 예절을 중심으로 한자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 사할린에서 한국어교육 사항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현재 몇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 한국어 채택학교는 러시아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배우는 학교로서 7개교에서 5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의 한글학교는 11개교로서 주로 각 지역 한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7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 원장님의 업무 중 하나는 한민족 문화 보급인데 2017년에 어떤 문화행사가 있었고 올해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국 문화를 계승하고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원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든지 또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러우호 축제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러시아 문화를 함께 공유해가는 행사를 작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는 10월 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여기 사할린 한인들이나 러시아 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현대 무용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 사할린한국교육원이 개원된 지 25년이 되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기념행사가 있으신지요?

-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원이 1993년 12월 10일 개원했습니다. 아직 큰 틀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잡지 않았지만 한·러우호 축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25년 동안 한국어 교육 등을 열심히 전파하고 공을 세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례로 한국문화체험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자와 함께 열심히 교육원 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하야튼 예산의 범위에서 이분들을 한국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해마다 학생, 수강생, 한국어교사들을 위한 교류 등 프로젝트들을 실시하거나 교환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한 프로그램에도 우리 사할린 출신들이 참가하도록 교육원 측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 동서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를 비롯해 러시아인에게도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재외동포재단이나 국립국제교육원 - 이런 데서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2주에서 4주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매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수를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사할린과 인연이 깊은 동북아청소년협의회가 한 해는 사할린에서 학생 위주로 캠프를 진행하고, 또 한 해는 2주이상 구미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예절교육이나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 교육을 합니다. 올해도 7-8월에 사할린 청소년 20-30명이 한국으로 초청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이 연수에 어른들 몇 분도 함께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교육원이란 곳에서 경기도 안산에 영주귀국하신 할머니·할아버지의 손자·손녀(사

할린동포 3-4 세, 학교학생)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할머니·할아버지와 만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데 이번에 사할린에서는 4월 15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7명이 능력시험에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21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어 능력과 학업 능력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연수과건으로 학생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니까요.

사할린에서는 1년에 한 번 밖에 실시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한국능력시험이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예비교원 현지 실습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사할린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외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는 기획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원이 항상 협조하고 있습니다.

-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올해도 교육원이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실시할 예정이네요.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설날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신문이 나가는 이날이 바로 2018년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건강하신 가운데 조금 더 내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2018년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빅토리아> 축제 및 경연 진행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 낭독과 애국적 노래의 주 축제 및 경연<빅토리아>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주내 지방자치체 15개 지역을 (아니와, 돌린스크, 토마리, 홈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오하, 노글리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시, 티몹스코예,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호, 우글레고르스크, 쿠릴스크 구역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대표하는 참가자들 350여 명이 경연에 나선다.

축제 및 경연은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음악문화와 시에 대한 예술적 인식과 사랑을 키우고, 우수 예술단체들과 솔리스트들을 발굴하고, 우수응용 교육을 소개하려는 데 있다.

이 행사는 주 교육부와 주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가 주최한다.

2월 14-15일 오전10시 청소년 예술회관 공연실에서는 시 낭독과 문학적 음악 작곡의 참가자들이 경연예선을 치렀고 12시는 솔리스트 및 보컬 참가자들의 경연예선이 이뤄졌다. 2월 16일에는 청소년예술

회관 공연실에서 보컬 활동교실이 진행되고 2월 17일 15시에는 축제 및 경연의 결선으로 <빅토리아>시 낭독 및 애국적 노래 공연이 펼쳐진다. 선발된 우승자와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있다고 주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는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Виктория"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чтени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Виктория"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4 по 17 февраля.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5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Анивский, Долин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Холм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Корсаковский, Охин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Тымов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сего около 350 человек.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целью воспитания у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осприятия и любви к отечественной музык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слову, а также для выявления лучш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солистов, представления лучши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практик.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14-15 феврал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10:00 состоялись конкурсное прослушивание чтец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литературно-музыкальных композиций, а в 12:00 — конкурсное прослушивание солистов и вокальных групп.

16 феврал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вокалу, а 17 февраля в 15:00 —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чтени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Виктория" 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올 초부터 사할린주 어종보호기관의 직원들은 위반의 경우 벌금 48만 4000 루블리 징수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러시아수산업청 사할린·쿠릴지역관리국 구역어종보호기관 직원들은 237 건을 검토하는 통제감시 모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수중생물자원 및 다른 종별에 따른 서식환경수비대와 수산업청에는 80건의 위반사항이 기록되었다.

불법포획과 채취자들로부터는 사용했던 장비 47기를 압수하고 법령에 따라 벌금 48만4000루블리를 징수했다.

(8면에 계속)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응원·봉사에 나선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루지 남자 싱글 3&4차 주행 단체 관람 및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러시아, 스페인, 중국 등 언어 특기 살려 9명 올림픽 봉사스텝으로 활동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이 모국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지원하며 자원봉사와 응원에 나섰다.

초청장학생 200여명은 2월 11일(일) 20:00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루지 남자 싱글 3&4차 주행 경기를 관람하며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초청장학생 중 9명은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스텝으로 지원해 러시아, 스페인, 중국 등 평창올림픽 통역 및 언어지원 봉사 스텝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봉사 스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거주국 언어와 모국어 사용이 능숙한 점을 활용하여 올림픽 참가 선수, 관계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을 비롯하여, 안내, 의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레스센터 언어서비스 지원 봉사자로 선발된 에콰도르의 김윤아 학생은 "평소 익숙한 스페인어와 영어, 한국어를 통해 모국과 다양한 나라를 언어로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되어 뿌듯하다"며 "모국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양주시, 사할린 동포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양주시는 오는 16일 설날 당일 양주시 거주 사할린 동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을 지원한다.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거주했던 사할린 동포들은 설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기 힘들어 더욱 외로운 명절을 보내왔으나 남아아이스하키 OAR(러시아 출신올림픽 선수)와 슬로베니아의 경기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경선 사할린 동포회장은 "사할린에는 아이스하키 프로팀도 있고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한국에서 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양시는 2014년 양주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고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발언대] 4만여 사할린 동포, 이렇게 방치할 건가

2011년 일본 의회에 다녀왔다. '사할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의원회의' 진행을 위해서였다. 한·일 의원이 결의문을 내고,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제헌 국회 이후 사할린 관련 법안은 16건 발의됐는데, 절반 이상이 시효 만료로 폐기됐다. 작년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서 '사할린 동포'란 일제강점기에 동원된 15만명 가운데 아직 생존한 1세대나 그 직계 후손 4만3000여 명을 말한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본 군경에게 학대당하며 노동에 시달렸다. 일본 패망 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안고 코르사코프항에 몰려들었다. 그런데 사할린의 일본인 30여만명은 철수했으나 일본군이 보내줬던 귀향선은 끝내 오지 않았다. 동포들은 울부짖다 얼어 죽고, 미쳐서 죽고, 굶어서 죽었다. 1950년대, 일본이 마지막 자국민을 철수시킬 때도 사할린 동포의 귀향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무수한 한인이 사할린에 남았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소련인도 아닌 채로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모국 방문이 허용되었지만 부모·형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안산사할린고향마을과 인천복지관에 영주 귀국한 1세대들이 살고 있다. 현재 사할린에는 3만명으로 추정되는 2세·3세가 있다. 고국에 가고 싶으나 또 한번 이산가족이 걱정돼 남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2016년까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4136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왔고, 이후로는 2015년 83명, 2016년 11명 등 급격히 줄고 있다. 영주 귀국 사업이 1세와 배우자, 장애 자녀 1명에 국한된 탓이 크다. 귀국 1세를 대상으로 한 징용 및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원 대상부터 정확히 파악한 뒤 지원을 바라는지를 확인해야 매듭지어질 문제다.

사할린 동포 문제는 한·일·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일본 상대의 임금 반환 소송 문제 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일선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니 동포들의 한(恨)만 쌓여갈 뿐이다. 현재의 국적과 주권을 따지거나, 또 다른 외교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해 마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노윤선, 고려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 근무)

(2018.02.13)

출처: (조선일보)

해외 차세대 통일아카데미 발대식... 한인 차세대 140명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연천서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아세안지역회의 공동 주최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부의장 박종범)와 아세안지역회의(부의장 이숙진)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주관하는 '해외 차세대 통일아카데미'가 2월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렸다.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는 유럽 17개국, 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5개국, 호주, 미국 등 38개국의 차세대 120명이 참가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안내와 통역 등을 도왔다.

참가자 중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한인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입양 청소년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도 많았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참가자(28세)는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지킨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감동이다. 초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민주평통은 전했다.

스위스에서 오는 국제 입양 청소년(17세)은 "한국에 가는 것이 기쁘다.

나의 뿌리는 한국이고,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아프리카 가봉에서 온 한인 다문화 가정 참가자(15세)는 "엄마의 나라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접 관람하고, 또 여러 나라에 온 친구들과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해 의논하고 꿈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아카데미 입소식은 2월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렸다. 민주평통의 박종범 유럽부의장과 이숙진 아세안부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해외 차세대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일차엔 입소식, 체험관 견학, 통일



특강이 진행되었다. 3일차에는 DMZ 생태공원 체험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4일차엔 참가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단체로 관람했다. 5일차엔 통일 UCC 제작, 사무처장 특강

이 이어졌다. 6일차에는 판문점, 출입사무소 등을 견학하고 7일차에 퇴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월드코리안)

(사진: 김수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лимпиада—2018

Спасибо, Корея, за этот великолепный праздник!

Сегодня я нахожусь в самом сердце мира спорта – в олимпийском Пхенчане и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о своих впечатлениях и эмоциях. А впечатлений и эмоций за последние 5 дней было хоть отбавляй.

Прибыв в аэропорт Инчона была поражена тем, что аэропорт был... пуст.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и десятки посещений этих воздушных ворот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вый раз я не увидела очереди на паспортном контроле и в огромных залах было почти пусто, хотя сотрудники работали также отлажено, как швейцарские часы. Как мне объяснили позже, это связано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еще одного терминала аэропорта.

Сеул поразил еще больше тем, что, казалось, он совершенно не замечает, что в Корею проводится Олимпиада. Мы (я приехала вместе с мамой) проезжали через весь центр Сеула и не увидели ни одного символ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Это показалось довольно странным, ведь даже в нашем, очень далеком от Соч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2014 г.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символов олимпий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А в Сеуле их нет, город живет своей, прежней, жизнью. Впрочем, несмотря на обилие символов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ане и Каннине, городах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проведения,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жителей этих городов задействована в качестве волонтеров, города эти тоже, казалось, живут своей обычной жизнью – сонной и спокойной жизнью маленьких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ухоженностью рисовых полей, красотой деревьев и свежим воздухом гор Сораксан. Наверное, мы за это и любим Корею – несмотря на значитель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прогресс, ее атмосфера не меняется, напоминая нам о неторопливых веках соб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Атмосфера стадионов совершенно особенная. Мне и моей маме (а мы обе страстные болельщицы со стажем, правд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телевизионным) оказалось в новинку это абсолютное единение с многотысячным стадионом, радостные крики болельщиков, азарт и шквал эмоций, когда абсолютно не важно, за какую страну выступает победивший спортсмен – ты просто радуешься хорошему выступлению, поддерживаешь своих (будь то Антон Бабинов или Тимофей Лапшин, выступающий за Корею), и кричишь, кричишь, кричишь... Да, с этим не сравнится ни одна телевизионная картинк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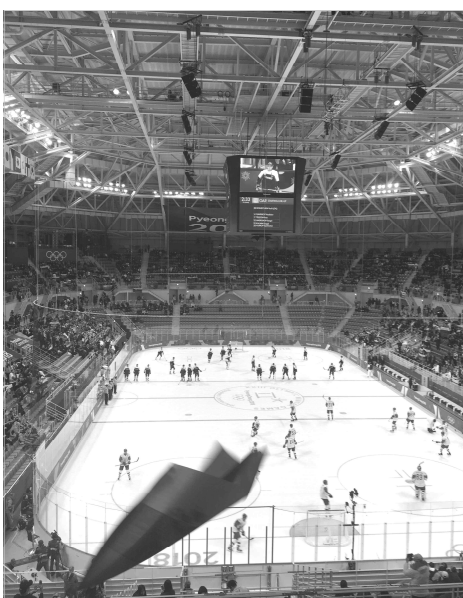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болельщиков также особая атмосфера. Все здороваются и знакомятся со всеми, лишь только услышав русскую речь. Москва, Екатеринбур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Якутия, Владивосток, Сахалин – вот только небольшая география тех, кто приехал поддержать нашу сборную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Люди делятся информацией о логистике и билетах, рассказывают свои захватывающие истории «боления»



в Сочи, Ванкувере и других Олимпиадах, передают по кругу еду и напитки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И никакой МОК и ВАДА не могут лишить нас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спорта и единения.

В перерывах между лыжами и биатлоном мы знакомимся с болельщиками других стран. Видео, где мы поем наш гимн и песню «День Победы», где слушаем гимн Франции и Норвегии в исполнении французов и норвежцев, даже попало на центральные российские каналы. Брали у нас интервью и корейские каналы, а обилие российских флагов показывали все камеры на стадионах.

Отдельно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пр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Олимпиады. Конечно, Корея славится своим сервисом и дружелюбием своих жителей, но тут они «переплюнули» сами себя. Молодые и не очень волонтеры, несмотря на незна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 нуж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 это вполне объяснимо их просто неимовер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настолько горят желанием помочь и помогают, что даже становится удивительно. Например, целых полчаса посвятили нам волонтер 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могая восстановить маршрут возвращения в отель (мы потеряли бумажку с заготовленными ориентира-



ми), и все это – при огромной толпе, ожидающей автобусы. Он не бросил нас и не сбежал, терпеливо вызванивал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а потом предложил нам отдохнуть и погреться в ожидании транспорта в кабинке для волонтеров. И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тут на каждом шагу.

В общем, поездка на Олимпиаду подарила нам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что пролетевшие пять дней кажутся яркими и нескончаемыми. Спасибо, Корея, за этот великолепный праздник!

г. Пхенч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Юлия Дин

МБУДО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ОТ ТРАДИЦИЙ К СОВРЕМЕННОСТИ»

18 февраля 16-00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программе:
Ярмарка, игры, флеш-моб,
конкурс талантов «Звездный час»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
89625810180, 89147476575

реклама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перелетите
люди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15%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с 01/01 по 31/03

реклама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CEPTION@GAGARINHOTEL.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и Синдзо Абэ проявили разногласия по ряду вопросов

9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японским премьером Синдзо Абэ. В ходе третьей по счёту дву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стороны проявили разногласия в разрешении спора вокруг проблемы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о изменившейся позиции КНДР. Мун Чжэ Ин чётко обозначил позицию о том, что проблема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должна решаться через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чести и достоинства жертв этого преступления, а не путём каких-либо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двух стран. Он предложил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и прямо смотреть на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Синдзо Абэ,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является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и его соблюдение, в том числе после смены власти,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ринцип. Он потребовал от РК соблюдать достигнутые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мимо этого Мун Чжэ Ин указал на беспочвенность опасений о том, что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может отрицательно повлиять на усилия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Синдзо Абэ призвал проявить осторожность в "политике улыбки", учитывая, что Север продолжает разработку ракетного 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разу после встречи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дал интервью японским журналистам, в котором назвал бессмысленным диалог ради диалога, и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наращивани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Президент РК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ли на концерте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11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и члены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СК побывали на концерт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театре в Сеуле. В бесед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Ён Нам отметил, что возвращается домой с надеждой на скорую встречу. Он сказал, что Юг и Север подготовили почву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добные контакты происходили чаще. В ответ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прилагать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успех этой «ценной встречи». Во втором отделении концер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Хён Сон Воль исполнила песню, посвящённую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ореи, а в финале концерта участниц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руппы «Сонёсидэ» Со Хён вмест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артистами исполнила песню «Ещё увидимся». Прощаясь с гостям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для преодоления нынешних трудностей. Член делегации,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ТПК Ким Ё Чжон, сестр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пригласила супруг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Чжон Су обязательно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После концер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ылетела в Пхеньян.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жители РК едут в родные места

14 февраля, накануне выходных дней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чалось массовое перемещение жителей РК, которые по традиции отмечают праздник в родных местах. С раннего утра людьми заполнены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танции, на Сеульском междугородном автобусном терминале особого ажиотажа не наблюдается,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билетов на этот день выкуплен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сообщили, чт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прогнозам в период с 14 по 18 февраля поездки к старш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а также просто к близким, совершат 32 млн 740 тыс. человек. Многие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отдых за границу. В среду из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как ожидается, вылетят 182.943 человека. За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аэропорт обслужит 940 тыс.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открытию второго терминал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не ожидается чрезмерной загруженности.

Расходы на приём гостей из СК составили 2,6 млн долларов

В РК одобрено выделение 2 млрд 860 млн вон или 2 млн 652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иё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гостей, прибывших на зимнюю Олимпиаду.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14 февраля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прошедшег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Чо Мён Гю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оплату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ебыванием в РК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самбля «Самчжиён», групп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болельщиков, показательной команды тхэквондистов.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выделены Фондом поддержк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Расходы на приём офици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покрываются отдельно из бюджета. Отдельно проходит также статья расходов в размере 25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пребывание группы подготовки к гастроля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самбля. (РКИ)

Олимпийский гамбит

Ким Чен Ын пригласил в Пхеньян президента РК

Прибывшая в Южную Корею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Ё Чжон передала официаль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от Ким Чен Ына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у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Мун не исключил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ей поездк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что сразу же обеспокоило Вашингтон и Токио. Мун пок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готовность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ему будет непросто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амбиции на практике.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гр Ким Ён Нам и Ким Ё Чжон сидели сразу за Мун Чжэ Ином с супругой. Фото: Reuters

Как и ожидали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приезд 9 февраля в Сеул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оказался не просто жела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хеньяна побывать на открытии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 неудовольствию консерваторов, а также многих в США и Японии, приняло главу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Ким Ён Нама, младшую сестру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и еще дву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по высшему разряду. Сразу же в день приезда Ким Ён



Нам, как формальный лидер делегации,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торжественный банкет, который устроил Мун Чжэ Ин для прибывших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тей. Во время сам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ОИ-2018 Ким Ён Нам и Ким Ё Чжон вообще сидели сразу за Мун Чжэ Ином с супругой и буквально в паре метров от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США Майкла Пенса.

Однако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события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огда в субботу Мун Чжэ Ин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Эксперты и на этот раз оказались правы, предположив, что первую скрипку в диалоге будет играть не глава парламента КНДР, а именно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превзошла самые смелые

ожидания, передав Мун Чжэ Ину от лидера КНДР личное письменное послание, а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осетить Пхеньян. Мун Чжэ Ин очень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 оставив для себя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маневра: мол, готов побывать в КНДР, если для этого сложатся подходящие условия.

Впрочем, дальнейшие событ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Ё Чжон сумели неплохо поладить. Сестра лидера КНДР, которая сумела покориť мест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своей милой и немного застенчивой улыбкой, оживленно общалась с Муном. Если судить по содержанию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денного времени, то в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Мун Чжэ Ин с супругой, а также делегация КНДР, устроили чуть ли не совместные выходные в стиле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Так, в субботу они совместно посмотрели матч объединенной женской хоккейной команды Кореи, где играли спортсменки как Юга, так и Севера, против Швейцарии. 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посетили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дал в Сеул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ансамбль «Самчжиё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Ф)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способствуют ли квоты росту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женщин в Южной Корее

Историк-востоковед **Наталья Ким** о том, как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оявились политические квоты для женщин и к каким результатам они привели.

По данным на 2017 год различные квоты для женщин на выборах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в 130 странах мира. Они введены как в странах Азии и Африки, сохранивших во многом патриархальный уклад (например, ЮАР, Танзании, Индии, Афганистане и Сомали), так и в высоко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Запада, в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преодолевших традиционализм внутрисемейных и межличностных отношений (Швеции, Франции, Норвегии, Германии и так далее). В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единого мн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ведение квот эффективно и правомерно, но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авторы сходятся на том, что в кратк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квоты позволяют численно повысить политическ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женщин.

За и против

Правомерность введения квот оспариваетс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причинам. Во-первых, утверждают их противники, квоты заведомо ограничивают выбор избирателя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духу свобод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о-вторых, они предполагают избрание кандидата не по заслугам, а по признаку пола. В-третьих, создают ситуацию навязанного выбора — грозят потенциальным конфликтом внутри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о поводу 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избирательном списке.

В качестве контраргумента сторонники введения квот апеллируют к социальн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возможной при условии равного участия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пола. Введение к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зволяет сгладить дисбалан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 институтах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овал веками и оправдывался определе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ей и идеологией. В этом смысле квоты служат благородной цели — продвигают идеи равенства и защищают гражданские права исторически дискриминируемых социальных групп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женщин). Расшир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ия женщин посредством квот, помимо прочего, «добавляет» легитимность органам власти. Квоты выступают своего рода политической компенсацией женщинам за то, что они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процессах приня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решений. Наконец, квоты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как



одно из эффективных средств исполнения подписанной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 — членом ООН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венции 1979 года о ликвидации всех форм дискримин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женщин.

Существуют три основных типа квот. Первы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и выдвижении кандидатов в выбор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могу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разном уровне: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м, местном. Т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во Франции, Греции, Польше, Аргентине, Колумбии, Монгол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торой тип — квоты, доброво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при выдвижении кандидатов на выборах (Швеция, Норвегия, Канада, Австралия). Третий — квоты, «резервирующие» опреде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для женщин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собраниях различного уровня (КНР, Танзания, Ирак, Алжир).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сочет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типов квот.

Корейская история

Вопрос о введении квот для женщин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стал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ть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с начала 1990-х годов. В то время доля участия женщин в голосовании на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была практически равна мужской, но избираемость женщин-кандидатов оставалась на крайне низком уровне.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почему они слабо избираются не только мужским, но и женским электоратом и что сделать,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их избираемость и выдвижение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о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и обращаться за новой выплатой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ведется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подано 18 заявлений в Невельском, Тым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Охинском районах, а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назначении выплаты четырем семья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помним, новая ме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ведена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детей, установленном в области з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года,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году обращения за назначением выплаты.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первенец, установлена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 14 734 рубля. Получателями новой выплаты в этом году,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станут более 12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раво на эту выплату имеют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еж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не превышает полуторакратную величину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ную з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ляет 21 828 рублей. То есть семья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папа, мама и ребенок) будет иметь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выплаты, если ее общий доход не превышает 65 484 рублей в месяц.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емьям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до достижения им полутора лет. Сначала она оформляется на один год. По истечении этого срока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одать новое заявл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указанной выплаты.

Кроме того, семьи с детьм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руги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мерами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бластной социальный паке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оддержку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весьма объемный и при этом ежегодно пополняетс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поддержку семей с детьми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4,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2016 году - 4,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2018 года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ли уже 4,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числе нов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действующих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 областной материнский (семейный) капитал в размере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для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включительно.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ие молодые семьи, у которых появился первый ребенок, имеют право на единоразов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54444 рубля, а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выплата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составляет 57438 рублей. Также в област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на питание всем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и детям до трех лет. В 2018 году размер этих выплат составляет 2265 рублей, в курильских районах - 4530 рублей.

Помимо этог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действует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В частности,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социальная выплата на уплату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в размере 5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лучае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займа с АО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д 7%.

Семь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д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ляски и товар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а также адрес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один раз в квартал). Семьи с детьми до трех лет, находящие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пунктов проката предме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детского инвентаря. Во времен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здесь предоставляют коляски, кровати, ходунки и т.п. Пункты проката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регионе на базе девяти социально-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йствующ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дают позити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Количество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ежегод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х стало больше на 534 семь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3 годом численность многодетных практически удвоилась,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2789 семей. Кроме того, наблю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семей с двумя и более детьми: доля рождений вторых 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в 2017 году составила 63% (2016 год - 62%).

Первый в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агрогородок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т в селе Раздолном на юге острова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в новостройках по улице Белорусской из рук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и первые девять семей. Это работники совхоза «Корсаковский». В агрогородке 50 одноэтажных трехкомнатных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домов, возведенных «под ключ». Площадь каждого - до 1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ейчас - это самый крупный объект современного сель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Жилье просто шикарное -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осторный дом в десяти минутах езды от моря, неподалеку от работы, со всеми удобствами. О таком еще недавно можно было только мечтать, -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овостройке тракторист Николай Коваль. -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мы с женой и двумя детьми переехали в Корсаков из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вартиру приходилось снимать. Руководство совхоза пошло навстречу и вот теперь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Мы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Появился отличный стиму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вить новы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рекорды.

Удобная планировка - три просторных комнаты, широкий коридор и большая ванная,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реимуществах дома новосел. В помещениях сделан ремонт, установлена новая сантехника и кух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есть электричество, горячая и холодная вода, а также,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 автономное отопление. В прихожей оборудован погреб, где можно хранить соленья и овощи.

Новоселы смогут вести приусадебное хозяйство, ведь к каждому дому прилагает собственный отдельный участок земли в 10 соток.

Жилье в агрогородке будет служебным,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совхоза «Корсаковский» Сергей Шаманаев. Пользоваться им можно бессрочно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периода рабо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Среди получателей есть приоритетные категории -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Важное условие - все новоселы должны зарекомендова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добросовестных работников.

- Первыми в агрогородок заселяются наши 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жилье и показали себя с лучшей стороны. Среди них доярки, скотники, трактористы-механизаторы. Следующая волна заселения пройдет после запуска в работу новой молочно-товарной фермы. Квартиры получат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цы, но и привлече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 те, которых не обучают на острове. Мы нуждаемся в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зооинженерах, ветеринарных врачах и других мастерах. Сейчас формируем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и уже получили множество звонков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например, из Волгоградской и Саратовской областей, а также из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верен, наличие комфортного служебного жилья позволит нам привлеч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Напомним,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на Сахалине возводится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За основу взят лучший опыт подоб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в братской стране. Всего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му проекту будет создано 6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на сегодня оценивается в 90 процентов. Под крышу уже возведены все здания комплекса, завершается монтаж стойл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одержания коров.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ервая партия скота сюда прибудет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2018 года.

Реализуемый на Сахалин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грарный проект включен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рынк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ья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2013-2020 годы. Ранее он получил высокие оценки от глав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Александра Лукашенко.

- На Сахалине строится образцово-показательно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е. Оно станет примером и для других местных хозяйств, этот опыт будет тиражироваться в регионе, - тогда 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Кожемяко о том, что поделимся своими лучш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дадим в помощь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технику, поставим высокопродуктивный скот. Будем вместе добиватьс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 не покупал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ую продукцию, а производил ее сам.

Объявлены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н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их выпуск-

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ремонте и обслуживании автомобилей, столярном деле, электр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ах. Рецепт победы также искали будущие повара и кондитеры. Кроме того,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показ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ландшафтному дизайну. А всего борьба велась по 24 компетенциям, победителям которых награды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Трехдневный марафон стал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его участников и большой тренировкой для региона перед финал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Он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августе, на остров приедут команд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И пока студенты выполняли задания, эксперты смогли оценить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 Провел аудит всех площадок, на которых проходили испытания. При этом сравнивал с тем, что был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нащение изменилось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стало больше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констатиру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Андрей Жигульский.

Первыми медали и грамоты получили бронзовые призеры. Ожидания между этапами награждения скрашивали оригина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паузы. Они повышали настроение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иливали волнение у номинантов, имена которых еще не были объявлены.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стремились получить опыт. Я выступала в направлении «Парикмахе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в один из дней мы делали прически манекенам. Вытягивали задание, как билет на экзамене, и приступали к его выполнению, - рассказала о буднях чемпионата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Валерия Макаревич,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в своей компетенции.

Главные наград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в ведущие компании региона. «Путевкой в жизнь»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Т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вы получаете,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жизни. Мы 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рабочая профессия была престижна для молодежи. Сегодня мы вручили победителям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Но рассматриваем и друг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ддержки чемпионов,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бедителям придется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тренировок, ведь они войдут в сборную области на шест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м чемпионате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воинов-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ов, погибши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служебного долга

Митинг в честь Дня памяти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состоялся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5 феврал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молодежные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объединения. Многие из пришедших принесли с собой портреты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 Человек жив, пока о нем помнят. Я уверен, что герои, которые погибли, исполняя свой долг в горячих точках, будут жить вечно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память нашего народа. Среди этих людей есть и сахалинцы. В лок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ах погибли наши земляки - в Афганистане, Чечне и других местах, где требовалась помощь в защите мирных граждан. Всегда, во все времена, самым надежным заслоном перед врагом становились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 сегодня наши ребята продолжают с честью служить родине. Уважаемые ветераны, вы с честью выполнили свой воинский долг. И сегодня играете заметную рол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молодежи, работаете на повышение авторитета и престижа воинской службы.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это, низкий поклон и вечная память погибшим, - отметил и.о.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Неретин.

По слов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Павла Кузьменко, сегодня власть уделяет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и поддержке ветеран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Погибших воинов по традиции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К памятнику скорбящей матери участники митинга возложили траурную гирлянду от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68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венки и живые цве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스크바 국립동양미술관서 한국 전통 '민화' 전시회

서민문화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들 러시아서 첫 민화 단독 특별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이시형)과 가회민화박물관(관장 윤열수)이 주최하는 한국 전통 민화전 「일상의 소망과 염원: 19-20세기 초 한국 전통 장식그림 '민화'」 개막식이 2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동양미술관에서 열렸다.



▲ 러시아 최초의 대규모 전통 민화 전시회 「일상의 소망과 염원: 19-20세기 초 한국전통장식그림 '민화'」 개막식이 2월 2일 모스크바 국립동양미술관에서 열렸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운데 주황색 넥타이)와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우 대사 오른쪽 두 번째),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내빈들 (사진 김원일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올해 개관 100주년을 맞는 국립동양미술관의 새해 첫 전시로서 다양한 소재의 민화 27점으로 채워진 단독 특별전이다. 주최 측은 민화에 표현된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 속에 뿌리 내린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소망과 염원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했다.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동양미술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계기에 이번 민화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간 문화적 이해가 심화되고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은, "우리네 문화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예술적 표현의 결정체인 민화를 유서 깊은 모스크바 국립동양미술관에서 선보이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민화 단독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한국미술을 전반으로 소개하는 행사 중 민화의 개념 정도가

소개되거나 민화만을 주제로 한 행사라도 작은 규모로만 열렸었다

이번 전시에는 '화조도'(꽃과 새), '어락도'(헤엄치는 물고기 그림), '문자도', '책거리'(책과 장식품 그림), '산수도'(산과 강 그림), '고사인물도'(전설과 인물 그림), '호작도'(호랑이와 까치 그림), '십장생도'(10가지 오래 사는 동식물 그림), '벽사장생도'(귀신을 물리치는 상징물 그림)와 같은 민화의 대표적인 주제로 구성된 작품들이 고루 선보이고 있다.

민화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예술분야로서 당시 서민들의 생각과 생활양식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사랑과 행복, 장수, 다복, 부귀영화 등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그려진 민화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생애 주기마다의 주요 행사(돌잔치, 혼례식, 회갑연)에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병풍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거나, 일상 생활공간의 벽이나 문, 벽장 등에 붙여지기도 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 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 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우리말로 깨달다]

반갑다는 말은?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반갑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반갑다는 말은 어떤 감정을 나타낼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만나서 반갑다는 말이다.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반갑다는 인사를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반갑다가 아닐까 한다. 우리말의 반갑다는 말은 기쁘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만나서 기쁘다는 정도의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반갑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듯하다. 사전에서는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로 해석을 하고 있다. 반갑다는 말은 그립고, 즐겁고, 기쁜 감정이 담겨있는 낱말이다.

반갑다는 말은 <반 + 갑 + 다>로 이루어져 있다. <갓 + 갑 + 다>(가깝다)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기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반 + 기 + 다>로 볼 수 있다. <즐기다>의 예를 보면 반기다의 구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반기다', '반갑다'의 형성 방법이 '즐기다', '즐겁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다>라는 말이 없어서 어원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갓다>나 <즐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어원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어휘 구조로 봐서는 '반', '갓', '즐'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반'은 빛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반짝>이다. 이는 빛이 나는 모습을 표현한 의태어이다. 모음을 바꾸면 <번쩍>이 된다. 번쩍과 연결되는 단어가 <번개>다. 번개도 하늘에서 빛이 내려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어휘로 번은 빛과 관계가 있다. 번개는 하늘에서 '안개, 무지개, 는개' 등과 짝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빛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별레 중에서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반딧불이이다. 이는 반디에서 발전된 말이다. 반디의 반도 빛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반디라는 말에서 반이 빛이라는 점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뒤에 불이 붙은 것이라 생각된다. 반디는 빛 벌레인 셈이다.

반이 이렇게 빛의 의미임이 명확하므로 반갑다는 의미도 추론이 가능하다. 환해진다는 의미다. 얼굴이 밝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가? 괜히 기쁜 웃음이 난다면 반가운 거다. 꼭 다문 입술을 하고 반갑다는 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반갑다는 핵심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다.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맞이한다는 의미이다.

반갑다는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되돌아본다. 나는 밝았을까? 나는 사람을 만나서 기뻐했을까? 정말 반가웠을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다. 미소가 얼굴 한 가득이다. 하지만 싫은 사람을 만나면 얼굴도 굳고, 마음도 굳는다. 종종 은 억지 웃음을 짓게 된다. 이런 웃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뒤돌아서면 사라져 버린다. 정말 0.1초도 안 걸린다.

즐거운 미소는 입가에 남아있다. 이걸 입가에 '걸려있다'고도 한다. 그야말로 싱글벙글거린다. 사람들마다 묻는다. 좋은 일이 있냐고. 내가 말 안 해도 내 밝은 표정이 주변을 밝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반갑다가 보여주는 세상이다. 반가운 사람, 반가운 일이 많아지기 바란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남양주 현대병원, 사할린동포·소외계층 위한 정육선물세트 전달

경기 남양주의 현대병원(원장 김부섭)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사할린 동포와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정육선물세트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선물세트는 사할린에 거주하다 영주 귀국해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와 오남·별내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김부섭 원장은 "설날을 맞아 준비한 작은 선물이 사할린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병원은 2011년 북부희망케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정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희망나눔바자회, 저소득 청소년 몽골해외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부섭 남양주 현대병원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지난 12일 사할린 동포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육선물세트를 류시혁 북부희망케어센터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아주경제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 начала года работники рыбоохра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зыскали с нарушителей 484 тысячи рублей

С 1 января по 12 февраля работниками районных отделов рыбоохраны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проведено 237 контрольно-надзо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 этот период им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80 нарушений в области рыболовства, охраны среды обитания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и по другим статьям.

У нарушителей изъято 47 единиц орудий лова, с них взыскано 484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каче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штрафов.

작년에 сахалин 인형극장 배우들 483 회나 무대에서 상연

2017년에 сахалин 인형극장 무대에는 6개의 우수 작품이 초연되었다. 그중 한 작품인 <드라큘라>연출은 국립연극 부문 <황금 마스크>상을 수상했다고 심사위원은 강조했다.

인형극장의 상연 목록에 65개의 작품들은 아직도 상연되어 성인과 아이 할 것 없이 전 관객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인형극장 배우들은 483회나(리허설을 제외하고) 무대에 올랐다.

<섬의 기적> 제4회 국제인형극 축제는 сахалин 지역의 문화적 삶에 사건이 되기도 했다.

4만5천명의 сахалин 주민과 주의 관광객들이 배우와 인형들을 환영했고 여성 관객은 남성 관객보다 3배나 더 많았으며 2016년에 비해 자녀와 함께 온 아버지의 수는 2배나 늘었다. 9개국, 20곳의 인형극장들, 22작품의 인형극, 7000여 명의 관객 - 이 모두가 10일간 이뤄졌다. 국제인형극 축제는 극동지역의 가장 큰 기사로 떠올랐다.

3곳의 사진전은 배우와 예술가들과 연극 소품 제작자와 전 세계의 인형들을 소개하는 장이 되었다.

극장 측이 제작한 3개의 큰 기획들은 <빛의 마법>, <축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기적의 날>이다.

2017년에 극장은 카잔의 각 지역들과, сахалин주의 각 마을들을 찾는 순회공연으로 1만 킬로미터의 공연 길을 다녔다.

순회공연 시 인형극장 측은 51회의 상연을 펼쳤다.

일본의 카제노코극장, 타타르스탄의 에키아트극장이 сахалин의 무대를 찾아왔다.

극장에 대한 1천 개의 다양한 기사들이 매체들인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페이지, 포털, 블로그 등에 올라 약 20만 명이 기사를 접했다.

인형극장 내에 <베누아르>카페에서는 1540리터의 커피와 점심식사 1만4000 인분, 케이크 2100개, 만두와 파이 8920개가 매진되었다고 сахалин인형극장 측은 전했다.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483 раза вышли на сцену

6 премьерных спектаклей увидели свет в 2017 году в стен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Один из них — постановка "Дракула" — отмечен жюри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атральной премии "Золотая маска".

65 спектаклей живут в репертуаре театра и радуют маленьких и взрослых зрителей.

483 раза артисты театра кукол выходили на сцену (не считая репетиций).

45 000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аплодировали людям и куклам, причем женщин было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в сравнении с 2016 годом.

IV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кукол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стал событ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9 стран, 20 театров, 22 спектакля, более 7000 зрителей и все это за 10 дней — статистика самого крупн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ов кукол.

3 фотовыставк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б артистах, художниках, бутафорах театра и кукольниках всего мира.

3 больших проекта созданы в театре: "Магия света", "К вам едет фестиваль" и "Чудо-день".

Более 10 000 гастрольных километров преодолел театр в 2017-м, побывав в Казани, проехав по городам и поселк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1 спектакль показал театр во время гастрольных туров.

2 театра ("Кадзеноко" из Японии и "Экият" из Татарстана) приезжали в гости.

Более 1000 самых раз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ышли о театре на ТВ, радио, в газетах, интернет-страницах, порталах, блогах, охватив около 200 000 человек.

В театральном кафе "Бенуар" выпито 1540 литров кофе, съедено более 14 тысяч порций обедов, 2100 пирожных, 8920 пирожков и слоек,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아시아나항공 сахалин지점 계약직원 채용 공고

아시아나항공 сахалин지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할 여성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1명 (계약직)
2. 근무기간: 1년 (근무 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3. 계약 조건: 급여(면접시 상세 안내), 본인 및 가족 항공권 지원(면접시 상세 안내)
4. 기타 안내: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우선 채용
5. 채용 절차: 이력서, 학력증명서 제출 및 면접 (면접자중 우수자 채용)
6. 업무 내용: 예약 및 발권, 공항업무, 기타 지점 전반의 업무
7. 근무 장소: 아시아나항공 сахалин지점(라다호텔 1층) 및 공항(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8. 연락처: 전화 722-001
e-mail alexei@flyasiana.com

Объявление

Женщина (65 лет) жела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ужчиной 1-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р.) без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онтактный тел.: 89147605311
89242804045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